



# AIDS news

## VGX "FDA, 에이즈치료제 추가임상 승인"

지바 과학자가 개발 중인 에이즈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추가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 '1일 VGX인 더네시넬(01-000)의 대주주이자 바이럴제약, 미스새대표 조셉 김에 따르면 FDA는 최근 이 회사의 조셉 김 박사님이 사제 개발 중인 에이즈치료제 '픽노비어(PCTOVIR)'에 대해 추가 임상 2상을 승인했다. FDA가 임상 2상을 다룬 약물에 대해 추가 임상 2상 승인을 내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개발된 약물의 유효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회사는 이번 추가 임상 2상을 통해 픽노비어의 효과적인 사용량을 결정한 뒤 올해 안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보통 임상 시험은 1상부터 3상까지 이뤄지는데 1상은 약의 용량과 독성 여부, 제제 약물의 동태 관찰 등을 목적으로 하며 2상은 1상에서 결정된 용량의 안정성 여부와 약물의 효과 등을 보게 된다. 인체에 확대 적용되는 3상 단계에서는 임상과 함께 제문이 출시되기도 한다.

회사 측 자료에 따르면 바이럴제노티스사는 그동안 미국의 9개 대학병원에서 모두 48명의 에이즈 환자와 가짜 약을 복용시킨 12명의 일반인 그룹을 대상으로 임상 1상과 2상을 동시에 실시했다. 이 결과 225mg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높게 나타난 반면 용량이 적은 75mg, 150mg을 복용한 환자에서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이번 추가 임상 2상을 통해 모두 48명의 새로운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 용량을 2주 기격으로 300mg에서 600mg, 1천 200mg까지 대폭 늘려 투여한 뒤 효과를 관찰한다는 계획이다.

조셉 김 대표는 "이번 추가 임상 2상은 에이즈 치료제 개발의 또 다른 획기적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임상을 통해 효과적인 사용량을 결정하고 하루에 한 알만 먹는 새로운 개념의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6.04.11)

## 인 에이즈 감염인 520만 명 초과

인도 에이즈 감염인이 지난해 520만 명을 넘어섰다고 유엔이 이스프레소가 8일 보도했다. 새로운 디엔주에 공식 발표를 예정인 유엔에이즈통제기구(UNAIDS) 보고서를 인용, 지난 2004년에 2만 8천 명이었던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지난해에는 7만 2천 명으로 57%가 증가했다.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아직 인도 에이즈 인구가 남아프리카공화국(530만 명)보

다는 점도 강조했다. 에이즈 감염인의 성비를 보면 남자가 60.3%, 여자가 38.4%이며, 0세가 감염자는 1%에 못 미쳤다. 또 연령별로는 22-45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에이즈에 따르면 인도 에이즈 인구는 2003년 말 현재 510만 명으로 남아공에 2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기록일 뿐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GFFATM)를 비롯한 다수의 에이즈 관련 단체들은 인도가 이미 남아공을 추월한 것으로 보고 있다. UNAIDS도 남아공의 감염자 범위를 450만-620만 명으로 좁은 반면 인도는 250만-850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인도 에이즈 인구의 정확한 파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적 낙인 때문에 에이즈 검사를 꺼리는 것이 인도 에이즈 감염인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한편 NACO는 현재 700개인 무료 에이즈 검사 센터를 2010년까지 2만 4천개로 늘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6.04.06)

## 성문화에 개방적인 대학생, 에이즈 걱정은 별로 안 해

기방저 성문화에 접한 대학생들이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대 신묘방송학과 김동철 교수가 최근 사이비수업을 수강 중인 수도권 영·호남 등의 대학생 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5일 e-게임을 즐기는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들은 에이즈 감염에 대해 막연히 '낙관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들은 '같은 조건의 평균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자신이 먼저 또는 쉽게 에이즈를 경험할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 '확률평균 4보다 훨씬 낮은 1.69로 인식했다'. 이번 조사는 '중허 아니다.' "부터 기우 그렇다." 7까지의 숫자 중 다른 사람과 같은 확률일 경우 평균인 4로, 낮은 때는 1~3, 높은 때는 5~7의 수치로 가치가 느껴는 강도에 따라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설문에서는 또 자아존중감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 195명(1.50)이 낮은 집단 158명(1.94)에 비해 오히려 에이즈에 걸릴 확률을 낮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에 대한 통제감이 높은 집단 77명(1.41)도 낮은 집단 76명(1.98)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이즈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 베트남 '에이즈 신부' 파문

한국 남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베트남 여성들 가운데 2명이 에이즈 감염인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는 20일 "지난해 6월 1일부터 7개월 간 대사관 지정병원(한·베트남 친선병원)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게 한 결과 532명 가운데 69명이 에이즈 등 질병보균자로 판명됐다."면서 "질병보유자 69명의 비자 발급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질병으로 비자가 거부된 이들은 에이즈가 2명, 매독 7명, B형 간염 39명, 흉부질환 21명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국 남성들이 결혼을 앞두고 현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에서는 외국인 결혼알선업체를 통해 상호간 건강진단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와 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당국에서도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독일, 일본 등은 건강검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에이즈로 확인된 감염인이라 할지라도 입국을 거부하지 않고 에이즈 환자와의 결혼 여부도 본인의 결정에 맡기고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보면 비자발급 거부 자체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의 불화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 해 1만여 명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들 가정에서 뒤늦게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등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006.03.27〉

김 교수는 "대학생들이 올바른 성생활을 하지 않아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리적 특성에 맞춰 교직원단을 서훈하는 방식으로 에이즈 예방캠페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오는 7일 고려대에서 열리는 한국광고학회 신포시업에서 "국내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관한 인식과 편견 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이같은 조사내용을 발표한다."

〈국민일보 2006.04.05〉

## 수혈로 에이즈 감염 국가보상 추진... 여야 의원 12명 무상치료 등 법안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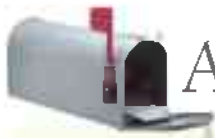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에게 국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무상치료 및 취업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1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현행 의학기술로는 '항원항체만 발견'되는 혈액 중에 존재하는

ADS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를 완전히 탐지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에 수혈대상 수술을 제거해도 권리인두를 하는 사람이거나 수혈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감염인은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들 에이즈 감염인의 경우 일부 재판을 통해 승소 시 위자료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소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 법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다.

수혈로 에이즈 감염 시 국가 보상에 대한 가정 혈액관리법은 열린우리당 김원웅 등 여야의원 12인의 발의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김원웅 의원 측은 "발의한 혈액관리법은 국가가 수혈로 인한 ADS에 감염된 사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무상치료 및 취업보호 조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나, 더 많은 수의 공사를 밝혔다."

김원웅 의원에 따르면,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에게 대한 보상의 사용 및 구상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허여하며 혈액사업 수익 중 일부를 저축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 에이즈감염인 해고 못한다

앞으로 사업주는 피고용인이 에이즈에 감염됐더라도 고용이나 승진 등에 있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감염인을 해고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 받는 피검자가 본명 대신 가명으로 검사 받기를 원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또 검사 결과 에이즈 감염으로 판정돼 의사나 의료기관이 배우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할 경우 시기와 방법, 범위 등을 감염인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에이즈에 감염됐더라도 발병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동료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발병한 감염인에게는 휴직처리나 병가 등을 해줘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강향신는 2006.03.13〉

두번에 걸쳐, 수혈로 인한 감염 피하지에 대한 그가차원의 보상 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자들은 이어 오원 김원웅, 위상수, 심제철, 강청원, 손규환, 박상돈, 엄호성, 박병석, 김태년, 정미영, 윤호중, 주호영 등 12명이다.

〈국민일보 2006.03.28〉

## 고흥군, 청소년 에이즈예방 조기교육

고흥군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1차 320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순회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 22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11개교를 순회 방문하여서 조기교육을 통해 에이즈의 정확한 실체를 알리고 에이즈의 위험성과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연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학을 맞아해 집단급식과 기숙생활 등 공동체 생활에 따른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와 불결 대우도 한사 등 번거로운 날씨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개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수칙에 대해서도 적극 교육·상담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에이즈 예방교육을 시키는 배경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일부 신진국에선 8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도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성에 노출되기 이전인 청소년기부터 에이즈에 미리 대비해야 하며 에이즈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지식을 지키고 이웃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군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대한 위인성을 정확히 인식케 하고 수의대상 법정 전염병의 증상, 역학적 특성, 예방치료에 대해서도 교육 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래 모임 등을 통해 활발히 토론함으로써 올바른 성도학기 정착되고 성능에 대한 인식은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6.03.27〉

## 에이즈 감염인들 '힘겨운 삶'

국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감염인은 질병 경과와 사망 위험도 등이 비슷한 당뇨병 환자에 비해 체감하는 통증에는 차이가 있으나 눈이나 느끼는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HIV 감염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위촉에 의해 이후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 척도인 SF-36을 이용한 결과 HIV 감염자는 평균 47.9점으로 당뇨병 환자의 66.5점을 크게 밑돌았다. HIV 감염인은 통증 정도가 당뇨병 환자와 비슷하지만 '건강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중저작 문제와 관련된 활동'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HIV 감염인은 감염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자 255명 중 44%가 무직이었으며 54.8%는 HIV 감염 이후 소득이 줄었다고 대답했다.

또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 기고시한 '인구 최상생계비 41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65%였고 전체의 46.6%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83.5%는 HIV 감염 이후 수급대상이 됐다. 응답자의 65%는 "누군가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감염 사실이 누설된 적이 있다"고 말했고 상당수가 의료기관, 수면인, 가족으로부터 암시적인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신남하 중생면역-면역시하 에이즈 발병 등 HIV 감염 각 단계에 놓인 감염인 255명(남자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경제 2006.03.17〉

### “에이즈 감염인 자살률 일반인 10배”

에이즈 감염인의 자살률이 일반 국민의 10배에 이르고 병원에서의 치료차별, 감염사실 누설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상황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말 현재 감염인은 3천 657명이며 70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실시한 이후지 위헌에 반대교수는 “성병관리 본부의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에이즈 감염인은 연간 최대 9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조사돼 자살률이 일반 국민(1만 명당 연간 2~3명)의 10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감염인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곤란(26.6%) △건강악화에 대한 불안(17.7%) △감염사실 누설에 대한 걱정(12.5%) △가족들의 외면(9.7%) 등으로 나타났다. 또 기혼자(동거 포함)의 51.0%가 이혼이나 이별을 당했으며 29.2%는 그럴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에이즈 감염인의 삶의 질은 평균 47.9로 의료기관 이용률 등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 정상군(총 평균) 환자의 66.5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또 응답자의 44.0%가 현재 무직상태이다. 월평균 소득이 1위 가구 최상생계비 이하인 경우도 65%였다. 인권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추후 할 계획이다.

〈부산일보 2006.03.17〉

### 씨티은행, 어린이 에이즈환자에 기부금

한국씨티은행(은행장 허영규)은 11일~12일 양일간 잠실 올림

포펜싱경기장에서 열린 '2006년 씨티 가느 행복카드 콘서트'에서 박영준 유니세프 총괄본부장에게 어린이 에이즈 환자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부금은 지난 1월과 2월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카드 및 한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개최한 '씨티 가느 행복카드' 이벤트 기간 중 고객들의 가느 사용 금액 일부를 회사에서 기금으로 조립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씨티 가느 닛 한미 가느 고객 중 총 1만 명의 가족 및 어린이 고객에게 음악과 공연, 퍼즐쇼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콘서트는 최현우의 매직쇼와 김한준의 가스 판 공연, 두깨비 스톱의 하이카이트 공연 및 피아니스트 이루미, 가수 우리상사, 이승환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해럴드뉴스 2006.03.13〉

### IP 에이즈女 지방선거 도전 “내 나라 감염확산 막고 싶어”

3년 전 자신의 후천성면역결핍증(ADS·에이즈)감염 사실을 공개한 인도의 한 여성이 에이즈 퇴치운동의 일환으로 다음 달 있을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어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주인공인 지나미 고소오미(29살)는 전통혼례로 결혼한 남편에게서 에이즈에 감염됐으며 단에게도 에이즈를 물려주는 불행을 겪었다. 그는 “서른두 살에 순주 남편이 숨지기 며칠 전까지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두 실컷기들은 남편이 숨진 지 1년 후에 사망했다.

이후 고소오미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공개하고 아삼(주)에서 에이즈 감염 공거를 촉구하는 시민단체까지 만들어 디올디나 돌면서 에이즈 강의를 해 왔다. 이런 그가 다음 달로 예정된 아삼 주의회 선거에 나선 이유도 에이즈 환자임을 숨기 채 지내면 에이즈가 더욱 확산한다는 것을 느낀 알기 위해서다. 그는 “4월 선거에서 당선되면 힘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심어 주는 인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에서 에이즈 감염 사실을 공개한 이로서 수 차원의 공직에 출마한 것은 고소오미씨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와 미씨는 낙선해도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인도의 에이즈 감염자는 모두 513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수치다. 적극적인 에이즈 퇴치에 나서지 않는 한 몇 년 안에 세계 1위 자국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아일보 2006.03.09]